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라기훈\*\*, 임나영\*\*\*, 이창훈\*\*\*\*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바람직한 진로지도·상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문제로는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가로 설정하여 구명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여 검사도구를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개인특성(1문항), 부모지지(22문항), 진로결정수준(22문항), 회복탄력성(27문항)으로 총 7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국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를 제외한 689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년별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각각 보통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하위요인별로는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지지와 언어적 격려가 진로결정수준에 50%이상의 설명력을 보였다. 매개효과 측면으로는 부모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복탄력성 전체와 하위요인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이 모두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지도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가정적요인과 학생 내적요인을 모두 고려한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정서적, 언어적인 측면을 활용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부모지지와 회복탄력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특성화고등학교, 부모지지,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수준**

\*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충남대학교

\*\*\* 교신저자: 임나영(dlask13@naver.com), 충남대학교, 042-821-7934

\*\*\*\* 교신저자: 이창훈(harmony@cnu.ac.kr), 충남대학교, 042-821-8579

## I. 서론

### 1. 문제 제기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간과정으로 생리적,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심리적 격동기로도 일컬어진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의 목적에 따라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고로 구분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그중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교육목적이 지정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2017년 2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취업률은 50%에 달하여(교육통계서비스, 2017) 그 설립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이처럼 고등학교 졸업 직후 직업사회로 진출을 하는 학생이 많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은 스스로 자아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의 자아 이해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문새롬, 2016).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교원자격검정령을 통해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전국 고등학교에 도입하는 등 학교에서의 양질의 진로지도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양선주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 중 54.73%는 진로상담경험이 없었고, 진로상담경험이 있는 학생 중 56.21%가 '학교가 진로상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하였다. 학생이 진로에 대해 안정적인 의식을 가지 못할 때 불안정한 진로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방황과 갈등, 취업 후 부적응으로 인한 손실이 있을 수 있다(이은정, 2012).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를 도울 수 있는 진로관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학생의 심리적 상태를 알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청소년기 학생에게 적합한 진로지도·상담을 위해서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과 진로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Holland, 1980). 진로결정과정에 있는 청소년은 진로결정수준 검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성격, 가치관, 흥미, 환경을 파악하고 진로에 대한 현재의 준비, 수행도와 심리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김봉환, 1997). 진로에 대한 자신의 결정정도와 심리적인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학생은 진로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학교에서는 진로지도·상담의 기초자료 또는 결과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기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Furman 등(1985, 1992)은 청소년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들 연구하면서 여러 지지원 중 부모가 애정, 원조, 도구적 도움, 가치감 증진 등의 측면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제공하며 대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 지지가 높은 학생은 높은 자존감과 학교적응을 가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반면에(이주연, 2001; 임나영, 2015), 부모의 지지가 부족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학생은 스트레스와 우울에 취약한 결과를 보였다(남한희, 2011; 박민호, 2009). 이처럼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 지지와 이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요인들 중 도전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박나정 외, 2018).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와 역경 혹은 위협이 닦쳤을 때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능력이다(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이 우수한 학생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였고, 새롭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지더라도 융통성 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과제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박나정 외, 201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힘인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과정 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지지와 회복탄력성 그리고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은 청소년기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부모지지,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분석하고, 특히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진로지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의 수준을 확인해본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확인해본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본다.

## 3. 용어의 정의

### 가. 부모지지

부모지지는 부모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일컬어 말한다. 대표적인 효과로는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해주는 것이 있다(김정애, 1994).

### 나.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스트레스나 고난 혹은 부정적 환경이 닥쳤을 때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이다(김주환, 2011).

### 다.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에서 한 점의 위치로 진로결정을 나타낼 수 있으며(김봉환, 1997), 진로결정수준은 개인의 직업, 전공 선택과 같은 진로결정 과정에서 현재 진행수준과 진로에 대한 확신정도를 의미한다(고향자, 1993).

##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계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연구결과를 특성화고 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지지

#### 가. 부모지지의 개념 및 선행연구

부모지지라는 개념은 부모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일컬어 말하는 것이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의 탄생의 순간부터 부모와의 끊임없는 관심과 상호작용 속에서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된다. 부모지지의 대표적인 효과로는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정애, 1994). 부모지지는 특히 애정, 원조, 도구적 도움, 가치감 증진 등의 측면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진로나 가치관 형성과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제공한다(Turner, 2003).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요인들이 진로결정단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청소년의 인격형성과 가치관 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체는 부모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지지는 모든 인간관계 형성의 시작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다른 사회적 관계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Turner(2003)이 개발한 ‘진로관련 부모지지 척도(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를 김수리(2004)가 국내에 맞게 수정·번안한 척도를 기본으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진로관련 모델링, 정서적 지지, 도구적 조력, 언어적 격려)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1> 김수리(2004)의 부모지지 측정도구

하위요인	내용
진로관련 모델링	부모가 자녀에 진로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할 수 있도록 모델역할, 가이드역할을 제공하고 영향을 주는 정도 (부모님은 나에게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
정서적 지지	자녀의 두려움과 고민을 부모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행위를 바탕으로 부모가 자녀를 뒷받침 해준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 (부모님은 내 미래의 직업에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
도구적 조력	부모가 자녀의 행위에 대하여 보상을 주거나 조언을 제한함으로써 보다 진로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정도 (부모님은 내가 장래 희망 직업과 관련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과외 활동을 하게끔 해주신다.)
언어적 격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언어를 통해 응원하는 정도이며 올바른 진로를 위한 바람의 표현 정도 (부모님은 내가 졸업 후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응원하신다.)

부모지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국내외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Avison & McAlpine(1992)는 청소년기 심리사회적인 발달에 부모지지가 큰 영향을 미치고 부모지지가 높은 청소년들이 부모지지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학교 적응력이 높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임나영, 이창훈(2015)의 부모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학교에 대한 높은 만족감과 적응력을 가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를 비롯하여, 부모의 지지는 아동·청소년기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주연(2001), 허재경(2005)의 국내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지지가 청소년기 개인의 생활과 진로결정단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2> 부모지지의 선행연구

연구자	내용
Peterson (1980)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가진 청소년이 자기존중감이 높으며 긍정적인 정서를 지닌다.
Avison & McAlpine(1992)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기 심리사회적인 발달이 잘 이뤄지므로, 학교적응력이 높으며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

연구자	내용
Turner (2003)	부모지지는 특히 애정, 위로, 도구적 도움, 가치감 증진 등의 측면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진로나 가치관 형성과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제공한다.
이상희 (2009)	부모지지가 잘 이루어질 때 진로결정효능감과 자기조절 효과로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의 효과가 있다.
이지연 (2013)	부모지지가 바람직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부모지지는 자녀의 진로 태도와 진로발달에서 다른 요인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2. 진로결정수준

### 가. 진로결정수준의 개념 및 선행연구

진로결정은 한 개인이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과 진로에 대한 정보, 가치관을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이다(황여정, 2007). 직업과 진로 선택은 자아를 실현하고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진로결정은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Wanberg & Muchinsky(1992)는 진로결정과정에 있어서 개인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점과 주변 상황으로 진로결정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에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 진로나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선택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있을 때 진로를 구체화 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곧 진로미결정이 된다(강선영, 1996). 김봉환(1997)은 진로결정수준을 확고한 진로결정과 완전한 미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하나의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결국 Wanberg & muchinsky(1992)는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하고 있으며 진로결정에 대해 자신이 있는 상태로 해석하였다(강선영, 1996).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함으로써 학생이 진로에 대해 어느 지점,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Osipow 등(1981)이 진로미결정을 단일차원의 연속개념으로 보는 것을 기반으로 개발한 진로결정검사를 고향자(1993)가 우리나라에 맞게 번안한 '진로결정수준 검사'를 김용재(2014)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한다. 이 척도에서 진로결정수준은 확고한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과 그 수준을 지칭하는 의미이며,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정에서의 미결정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성과 미결정성 두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3> 김용재(2014)의 진로결정수준 측정도구

연구자	내용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성	진로에 대하여 결정, 확신하는 정도와 그에 따른 심리적 편안함의 정도를 나타낸다.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 대하여 편안함을 느끼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
진로결정에 대한 미결정성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정도와 미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나 스스로 결정이 내리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개인의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진로미결정의 유형과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Holland(1980)는 진로미결정을 첫째, 진로결정에 압력이 없는 상태 둘째, 낮은-중간수준의 미성숙집단 셋째, 중간-높은 수준의 미성숙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Fuqua(1983)는 진로를 결정한 집단, 발달적 미결정 집단, 만성적 미결정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Jones & Chenery(1980)는 VDS(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에서 진로미결정의 하위요인으로 결정성, 편안성, 이유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최은영(2010)과 이해성, 홍혜경(1988)은 CDP(Career Decision Profile)를 국내에 맞게 수정·번안하여 안전결정형, 다재다능형, 잠정결정형, 불안결정형, 혼돈미결정형, 수행불안형의 6개의 하위유형을 분류하였다.

<표 4> 진로결정수준의 선행연구

연구자	내용
Holland (1980)	진로미결정에는 진로결정에 압력이 없는 상태, 낮은-중간 수준의 미성숙집단, 중간-높은 수준의 미성숙 집단으로 분류된다.
Fuqua (1983)	진로에 대해 집단을 구분하면 진로를 결정한 집단, 발달적 미결정 집단, 만성적 미결정집단으로 분류된다.
Jones & Chenery (1980)	VDS에서 진로결정의 하위요인으로 결정성, 편안성, 이유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최은영(2010), 이해성, 홍혜경 (1988)	CDP를 국내에 맞게 수정하면서 하위요인으로 안전결정형, 다재다능형, 잠정결정형, 혼돈미결정형, 수행불안형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진로미결정에 먼저 관심을 두었고 진로미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원인을 찾는 것에 주력하였다. 진로미결정에 대한 원인으로 진로정체감, 부모, 자기효능감 등 다양하게 그 변인으로 다루면서 이것을 변화시켜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은영, 2007; 배종훈, 2001; 한주옥, 2004).

### 3. 회복탄력성

#### 가. 회복탄력성의 개념 및 선행연구

회복탄력성은 resilience의 번역어로 Rutter(1979)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단어이다. 이후 연구자들은 역경에 직면한 사람들이 부정적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적응을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역경과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회복탄력성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박나정 외, 2018). 회복탄력성 초기 연구자중 한명인 Emily Werner(1990)는 회복탄력성 용어에서 탄력성이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이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긍정적 삶으로 튕겨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김주환(2011)이 정의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김주환(2011)은 회복탄력성에 대해서 Emily Werner와 유사한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회복탄력성의 의미를 고난, 역경 상황에서 적응 상태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회복'과 역경을 딛고 튀어 올라 평온한 상태보다 더욱 성장한다는 의미의 '탄력성'으로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김주환(2011)의 척도는 크게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3개씩의 하위요인으로 나뉘지는 구성으로 되어있다.

<표 5> 김주환(2011)의 회복탄력성 측정도구

연구자		내용
통제성	원인분석력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능력
	감정통제력	위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충동통제력	목표달성을 위해 작은 유혹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긍정성	감사하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생활만족도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
	낙관성	실패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하고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사회성	관계성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타인에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
	공감능력	타인의 감정, 표정, 행동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능력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크게 성격, 기질, 대인관계 등의 '개인내적요인'과 부모자녀관계, 또래와의관계, 학교생활 등과 같은 '외적요인'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하위요인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요인과 관계를 설정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t;표 6&gt; 회복탄력성의 선행연구

연구자	내용
Masten (1990)	중대한 역경이나 어려움에 처할 때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회복탄력성이다.
Emily Werner(1990)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이 삶을 극복하는 과정이 어려움으로부터 긍정적 삶으로 튼튼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포함한다.
신우열 등(2009)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내적요인, 정서, 환경, 사회성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은 유전, 환경,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개인능력이며, 체계적인 훈련과 개인의 노력에 따라 누구든 높일 수 있다
이해리, 조한익 (2006)	청소년들은 회복탄력성의 향상을 통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적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내적 요인, 정서, 환경, 사회성, 유전,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신우열 외, 2009; Revich & Schatte, 2002),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개인능력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훈련과 개인의 노력에 따라 누구든 높일 수 있다(김주환, 2011). 특히 청소년들은 회복탄력성의 향상을 통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적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이해리, 조한익, 2006).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요인들을 비교해보고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기간

이 연구는 전국에 있는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142,833명, 2018년 1월 기준)을 모집단으로 한다. 신뢰수준 95%, 최대허용오차 범위 5%로 설정하였을 때 적정표본크기는 368명이다(Krejcie & Morgan, 1970). 전국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역별 비율을 고려하여 비례유층표집 방법을 실시하였다<표 7>. 설문조사의 회수율과 불성실 응답을 고려하여 비례지수를 2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4-5월에 실시하였으며, 총 850부 배포하여 788부가 회수되었고 응답이 불성실한 99부를 제외한 689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lt;표 7&gt; 지역별 목표 표본수('18, 1월 기준)

지역별	학교수	비율	목표표본수	회수표본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87	35%	258	252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30	12%	88	140
전라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39	16%	118	129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76	31%	228	167
강원권(춘천, 원주, 태백)	15	6%	44	100
합 계	247교	100%	736	788명

\*자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www.hifive.go.kr). 계열-지역 및 계열-유형

## 2. 측정도구

이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개인특성(1문항), 부모지지(22문항), 진로결정수준(20문항), 회복탄력성(27문항)으로 총 70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지지 측정은 김수리(2004), 진로결정수준은 김용재(2014), 회복탄력성은 신우열 외(2009)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문항내용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보완하여 전문가집단(12명)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고 강원도 소재 A학교 세 학급을 대상으로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lt;표 8&gt; 측정도구

측정도구	구성요소	문항	신뢰도	출처
개인특성	학년	1	-	-
부모지지	진로관련 모델링	7-11	.812	김수리(2004)
	정서적 지지	6, 18-22	.870	
	도구적 조력	1-5, 12	.751	
	언어적 격려	13-17	.791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성	1-3	.849	김용재(2014)
	진로결정에 대한 미결정성	(4-18), 19, 20	.909	
회복탄력성	통제성	1-8, (9)	.789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긍정성	(10), 11, (12), 13-18	.884	
	낙관성	(19-21), 22-27	.855	

## 3. 자료처리 및 분석

이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에 IBM SPSS Statistics 23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5%로 하였으며,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의 부모지지와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한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둘째, 특성화고 학생의 학년에 따른 부모지지,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특성화고 학생의 부모지지와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과 단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특성화고 학생의 부모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진로결정수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개인특성에 따른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의 수준

#### 가. 학년에 따른 부모지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를 학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학년별 부모지지 수준을 분석한 결과 학년에 따른 유의수준 내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는 부모와의 관계와 가정환경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년에 따른 부모지지 수준

변인	학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진로관련 모델링	1학년	242	3.45	0.86	.229	.795	-
	2학년	225	3.47	0.86			
	3학년	222	3.50	0.84			
정서적 지지	1학년	242	3.56	0.75	2.438	.088	-
	2학년	225	3.46	0.81			
	3학년	222	3.62	0.77			
도구적 조력	1학년	242	3.65	0.76	2.223	.109	-
	2학년	225	3.30	0.70			
	3학년	222	3.36	0.61			
언어적 격려	1학년	242	3.81	0.75	1.214	.298	-
	2학년	225	3.70	0.80			
	3학년	222	3.75	0.73			

\* p<.05 \*\* p<.01 \*\*\* p<.001

#### 나.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학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학년

별 진로결정수준을 분석한 결과 학년에 따른 유의수준 내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변인	학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성	1학년	242	3.60	0.88	1.624	.198	-
	2학년	225	3.66	0.91			
	3학년	222	3.76	0.88			
진로결정에 대한 미결정성	1학년	242	3.42	0.63	0.359	.698	-
	2학년	225	3.41	0.62			
	3학년	222	3.46	0.57			

\* p<.05 \*\* p<.01 \*\*\* p<.001

#### 다. 학년에 따른 회복탄력성 수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회복탄력성 수준을 학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학년별 회복탄력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 학년에 따른 유의수준 내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년에 따른 회복탄력성 수준

변인	학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통제성	1학년	242	3.48	0.61	1.209	.299	-
	2학년	225	3.53	0.61			
	3학년	222	3.56	0.55			
긍정성	1학년	242	3.52	0.67	.133	.876	-
	2학년	225	3.52	0.68			
	3학년	222	3.55	0.63			
사회성	1학년	242	3.40	0.65	1.236	.291	-
	2학년	225	3.46	0.69			
	3학년	222	3.49	0.62			

\* p<.05 \*\* p<.01 \*\*\* p<.001

## 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의 관계

### 가.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부모지지는 회복탄력성( $r=.810, p<.01$ ), 진로결정수준( $r=.812, p<.01$ )과 유의 수준 내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 중 한 요인이 증가할 때 다른 요인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귀분석은 변인들의 정규분포를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검토를 실시하였다.

<표 12>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1. 부모지지	1	-	-
2. 진로결정수준	.812**	1	-
3. 회복탄력성	.810**	.836**	1
왜도	-.280	.039	-.177
첨도	.580	.555	.524

\* p<.05 \*\* p<.01 \*\*\* p<.001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 각각 하위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모든 하위요인들은 유의 수준 내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한 요인이 증가할 때 다른 하위요인도 증가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변인이 왜도<±3, 첨도<±10 의 범주 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형성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표 13>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 각각 하위요인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 진로관련 모델링	1								
2. 정서적 지지	.584**	1							
3. 도구적 조력	.609**	.704**	1						
4. 언어적 격려	.519**	.732**	.624**	1					
5. 진로결정 확신성	.516**	.618**	.547**	.493**	1				
6. 진로미결정성	.616**	.669**	.671**	.698**	.559**	1			
7. 통제성	.557**	.674**	.663**	.608**	.628**	.695**	1		
8. 긍정성	.554**	.679**	.628**	.633**	.567**	.732**	.707**	1	
9. 사회성	.513**	.646**	.590**	.604**	.557**	.718**	.665**	.691**	1
왜도	-.202	-.281	-.277	-.603	.131	-.062	-.056	-.466	-.219
첨도	-.298	.355	.511	.627	.296	.255	.291	-.162	.956

\* p<.05 \*\* p<.01 \*\*\* p<.001

### 3.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부모지지의 설명력

진로결정수준에 부모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하위요인에 대한 단순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진로결정수준에 진로관련모델링이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22.027로 유의수준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p<.001에서 F값 485.200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sup>2</sup>=.413로 41.3%의 설명력을 보인다.

진로결정수준에 정서적지지가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26.533으로 유의수준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p < .001$ 에서 F값 651.832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 = .505$ 로 50.5%의 설명력을 보인다.

진로결정수준에 도구적 조력이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25.531로 유의수준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p < .001$ 에서 F값 704.013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 = .486$ 로 48.6%의 설명력을 보인다.

진로결정수준에 언어적 격려가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26.364로 유의수준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p < .001$ 에서 F값 695.078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 = .502$ 로 50.2%의 설명력을 보인다.

진로결정수준에 부모지지 전체가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36.422로 유의수준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p < .001$ 에서 F값 1326.559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 = .658$ 로 65.8%의 설명력을 보인다.

<표 14> 부모지지에 대한 진로결정수준의 단순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beta$	t	유의확률
진로결정수준	상수	.074		25.737	.000
	진로관련모델링	.021	.643	22.027	.000
	R=.643, $R^2=.414$ , 수정된 $R^2=.413$ , F=485.200, p=.000				
	상수	.076		19.655	.000
	정서적 지지	.021	.711	26.533	.000
	R=.711, $R^2=.506$ , 수정된 $R^2=.505$ , F=704.013, p=.000				
	상수	.081		17.668	.000
	도구적 조력	.024	.698	25.531	.000
	R=.698, $R^2=.487$ , 수정된 $R^2=.486$ , F=651.832, p=.000				
	상수	.081		16.767	.000
	언어적 격려	.021	.709	26.364	.000
	R=.709, $R^2=.503$ , 수정된 $R^2=.502$ , F=695.078, p=.000				
	상수	.074		11.196	.000
	부모지지 전체	.021	.812	36.422	.000
R=.812, $R^2=.659$ , 수정된 $R^2=.658$ , F=1326.559, p=.000					

### 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부모지지가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부모지지가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복탄력성 전체와 그 하위요인인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에 대하여 Baron &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에 의한 매개효과 검정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 실시 결과 Durbin-Watson수치는 회복탄력성 전체일 경우 1.780, 통제성의 경우 1.750, 사회성의 경우 1.846, 긍정성의 경우 1.716의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공차한계(Tolerance)의 경우 회복탄력성 전체일 경우 .344, 통제성의 경우 .457, 사회성의 경우 .520, 긍정성의 경우 .460의 수치를 나타내어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

**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부모지지가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부모지지가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3단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먼저 회복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810, 2단계에서는 .812로 정(+ )의 영향을 보였고, 3단계에서는 부모지지가 .391, 회복탄력성이 .520의 값을 나타내었다. 모든 단계에서 유의확률은  $p < .001$  수준으로 유의하였다.

1단계와 2단계의 영향력보다 3단계에서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므로 회복탄력성은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5>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	종속	$\beta$	t	$R^2$	$\Delta R^2$	F	VIF
1단계	A	B	.810	36.207***	.656	.656	1310.929***	1.000
2단계	A	C	.812	36.422***	.659	.658	1326.559***	1.000
3단계	A	C	.391	12.043***	.752	.751	1038.170***	2.908
	B		.520	16.015***				2.908

\* 부모지지 = A, 진로결정수준 = C, 회복탄력성 = B

**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부모지지가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통제성의 매개효과**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부모지지가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3단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먼저 통제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737, 2단계에서는 .812로 정(+ )의 영향을 보였고, 3단계에서는 부모지지가 .588, 통제성이 .303의 값을 나타내었다. 모든 단계에서 유의확률은  $p < .001$  수준으로 유의하였다.

1단계와 2단계의 영향력보다 3단계에서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므로 통제성은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lt;표 16&gt;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통제성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	종속	$\beta$	t	$R^2$	$\Delta R^2$	F	VIF
1단계	A	B	.737	28.597***	.543	.543	817.762***	1.000
2단계	A	C	.812	36.422***	.659	.658	1326.559***	1.000
3단계	A	C	.588	19.034***	.701	.700	802.953***	2.908
	B		.303	9.796***				2.908

\*부모지지 = A, 진로결정수준 = C, 통제성 = B

#### 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부모지지가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긍정성의 매개효과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부모지지가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긍정성의 매개효과를 3단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먼저 긍정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735, 2단계에서는 .812로 정(+)의 영향을 보였고, 3단계에서는 부모지지가 .559, 긍정성이 .344의 값을 나타내었다. 모든 단계에서 유의확률은  $p < .001$  수준으로 유의하였다.

1단계와 2단계의 영향력보다 3단계에서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므로 긍정성은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lt;표 17&gt;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긍정성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	종속	$\beta$	t	$R^2$	$\Delta R^2$	F	VIF
1단계	A	B	.735	28.378***	.540	.539	805.338***	1.000
2단계	A	C	.812	36.422***	.659	.658	1326.559***	1.000
3단계	A	C	.559	18.557***	.713	.712	852.805***	2.172
	B		.344	11.401***				2.172

\*부모지지 = A, 진로결정수준 = C, 긍정성 = B

#### 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부모지지가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사회성의 매개효과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부모지지가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사회성의 매개효과를 3단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먼저 사회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692, 2단계에서는 .812로 정(+)의 영향을 보였고, 3단계에서는 부모지지가 .574, 긍정성이 .343의 값을 나타내었다. 모든 단계에서 유의확률은  $p < .001$  수준으로 유의하였다.

1단계와 2단계의 영향력보다 3단계에서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므로 긍정성은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8>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사회성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	종속	$\beta$	t	$R^2$	$\Delta R^2$	F	VIF
1단계	A	B	.692	25.158***	.480	.479	632.932***	1.000
2단계	A	C	.812	36.422***	.659	.658	1326.559***	1.000
3단계	A	C	.574	20.501***	.720	.719	882.739***	1.921
	B		.343	12.264***				1.921

\*부모지지 = A, 진로결정수준 = C, 사회성 = B

## V. 요약, 결론 및 제언

### 1. 요약

이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수준의 수준과 관계를 분석하고, 이 세 가지 요인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에 의한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 전체 평균은 3.52, 진로관련 모델링 3.47, 정서적 지지 3.55, 도구적 조력 3.36, 언어적 격려 3.75로 나타났으며, 판단기준에 의하여 부모지지는 보통수준으로 해석된다. 학년에 따른 부모지지 수준은 1학년 3.54, 2학년 3.47, 3학년 3.57로 나타났으며, 학년별 부모지지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전체 평균은 3.46,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성 3.67, 진로결정에 대한 미결정성 3.42로 나타났으며, 판단기준에 의하여 보통수준으로 해석된다.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은 1학년 3.45, 2학년 3.45, 3학년 3.50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 진로결정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회복탄력성 전체 평균은 3.50, 통제성 3.52, 긍정성 3.53, 사회성 3.44로 나타났으며, 판단기준에 의하여 보통수준으로 해석된다. 학년에 따른 회복탄력성 수준은 1학년 3.47, 2학년 3.51, 3학년 3.54로 나타났으며, 학년별 회복탄력성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은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위요인별로는 부모지지와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들이 중간 상관관계,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들이 높은 상관관계, 회복탄력성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부모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부모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65.8%, 진로관련모델링이 진로결정수준에 41.3% 정서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50.5%, 도구적 조력이 진로결정수준에 48.6%, 언어적 격려가 진로결정수준에 50.2%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부모지지가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다.

회복탄력성과 하위요인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을 각각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유의확률  $p < .0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보였고 회복탄력성의 경우 1단계 .810, 2단계 .812, 3단계에서 부모지지가 .391, 회복탄력성이 .520의 값을 나타내며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통제성의 경우 1단계 .737, 2단계 .812, 3단계에서 부모지지가 .588, 회복탄력성이 .303의 값을 나타내며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긍정성의 경우 1단계 .735, 2단계 .812, 3단계에서 부모지지가 .559, 회복탄력성이 .344의 값을 나타내며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사회성의 경우 1단계 .692, 2단계 .812, 3단계에서 부모지지가 .574, 회복탄력성이 .343의 값을 나타내며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 2. 결론

이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와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하위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결과 값이 유사한 보통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년,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지를 더 제공받거나 내적발달이 이뤄진다는 선행연구(송설희, 1994)와 상이하며, 학교에 갓 진학한 초기와 졸업을 앞둔 시기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은 학교의 진로에 대한 생각과 내적요소들의 발달이 이뤄질 만한 지도나 지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수준이 보통수준이라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적요소, 가정적인 요소들 중 취약한 부분을 분석하여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지지, 진로결정수준, 회복탄력성은 유의수준 내에서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부모지지, 회복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언어적 격려와 회복탄력성 모든 하위요인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는 진로결정과정에서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부모의 대화를 통한 격려와 스스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역경을 극복해내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진로에 대하여 하위요인 전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진로지도에 있어서 몇몇의 요인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염두 해야 한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회복탄력성은 부모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관

계에 있어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부모지지를 높게 받게 되면 그 지지를 바탕으로 회복탄력성도 높아지게 되고, 회복탄력성이 향상된 학생들은 진로결정단계에서의 수준도 높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데 부모지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진로지도가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가정적 요인(부모지지)과 내적요인(회복탄력성)을 모두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학교와 사회기관이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 3. 제언

이 연구 결과와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은 부모지지, 회복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부모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1학년에서 3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가도 부모지지,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수준이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가정적요인과 내적요인 모두 발전할 만한 도움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학교는 학생의 내적발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와 가정의 연계를 통해서 가정적요인과 내적요인의 향상을 통해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단계에서 부모지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은 선행연구와 본 연구가 동일하였으나, 학생의 편부모, 조부모 가정 등과 같은 다양한 가정상황을 고려하여 부모지지를 대체가능한 지지를 측정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선영(1996), **아이덴티티(identity) 발달수준과 진로미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고향자(1993),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교육통계서비스(2017). **2017년 교육통계 주요지표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국가교육통계센터.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수리(2004).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용재(2014),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진로 경로 및 진로결정 행동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은영(2007). 남녀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79-1100.
- 김주환(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복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고양:위즈덤하우스.
- 남한희(2011). **스트레스 요인이 청소년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문새롬(2016).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상태에 미치는 영향 :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박나정, 임나영, 이창훈(2018).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3(1), 20-40.
- 박민호(2009).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배종훈(2001). 군집 분석을 통한 진로 미결정 하위 유형의 탐색. **진로교육연구**, 14, 223-244.
- 송설희(1994), **가족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양선주(2014). 대전광역시 특성화고 학생들의 인식에 터한 진로 상담 운영 실태와 요구조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9(1), 85-101.
- 이은정(2012).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 긍정정서와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주연(2001), **일반청소년과 통신 중독 경향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자아정체감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혜리, 조한익(2006).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8(2), 353-371.
- 이혜성, 홍혜경(1988). 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 **한국심리학회**, 10(1), 143-166.
- 임나영, 이창훈(2015).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진로결정상태 유형 분석.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0(1), 40-63.
- 최은영(2010). **대학생의 진로결정유형별 특성과 진로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한주옥(2004). **여대생의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 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허재경, 김유숙(2005). 부모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0(4).
- 황여정(2007).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정보인지수준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7(1), 131-158.
- Avison & McAlpine(1992). Gender Differences in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2), 77-96
- Dyer & McGuinness(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 Fuqua & Hartman(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2(1) 27-29.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1), 103-115.
- Holland & Gottfredson & Power(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1200.
- M Rutter(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Annals of the Academy of Medicine.
- Masten A. (1990). *Resilience in development: Implications of the study of successful adaptation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261-294,
- Revich, K. & Schatte, A.(2002). *The Resilience Factor*. New York: Broad Books.
- Osipow & Schweikert(1981), The Career Decision Scale: A Test of Concurrent Validity. *Psychological Reports*, 48(3), 759-761.
- Turner(2003),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Measurement & Evaluation in Counseling & Development*, 36(2), 83-95.

**<Abstract>****The Effect of Parent Support of Specialized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o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Kihoon Ra\*, Nhayoung Lim\*\*, Chang-Hoo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support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specialization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and to find out ways to improve the level of desirable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level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 level, and resilience of special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Second,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 level and resil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Third, the resilience of resilience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support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special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to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 level, and resilience of special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was investigated and the test tool was produc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Parental support, career decision level, and resilience were highly correlated.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arent support and career decision level, 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 level, and emotional support and verbal encouragement were more than 50% of the career decision level. In terms of mediating effect, the effect of parent support on career decision level was found to be partially mediated by overall resilience and sub-factors such as control, positive, and sociality.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er guidance counseling, a program linked to the school and the home should be conducted considering both domestic factors and internal factors.

**Key words: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 level, Resilience, Specialized Technical High School**

---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ence: Research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lask13@naver.com)

\*\*\*\* Correspondence: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armony@cnu.ac.kr)